

간호학생의 죽음에 대한 태도 및 호스피스에 대한 인식

이현정

경동대학교 간호학과 조교수

A Study on the Nursing Student's Attitude Toward Death and Perception on Hospice Care

Lee, Hyun Jung

Assistant Professor, Department of Nursing, Kyungdong University, Goseong, Korea

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nursing students' attitude toward death and perception on hospice care. **Methods:** The survey was performed on 103 nursing students in one university in Goseong-gun, Gangwon-do. The data were collected by questionnaires and analyzed using descriptive statistics. **Results:** Regarding the attitude toward death, 90.3% of the students had thought about death. They worried about sense of loss and sadness due to parting with family (31.1%). About half (51.5%) of the students considered death as a final process of the life. With regard to the perception of hospice, 92.2% of the students heard about hospice through books or nursing classes (65.0%). Public institutions running by government was considered to the students as the best hospice management institution (44.7%). The students thought a ideal model of hospice setting in Korea was hospital or institution specialized with hospice care (51.5%). They considered the barriers to effective hospice care in Korea was the lack of the public consensus on the need for hospice program (35.9%). The average perceptions about the purpose of hospice care was 4.33 whereas the average of the need of hospice care was 3.85. **Conclusion:** The findings of the study provide the basis for expanding nursing practice and education related to hospice care.

Key Words: Death, Hospice, Nursing student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현대 의학의 발달로 많은 사람들이 질병의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고, 수명을 연장해주었지만, 치유 가능성이 없거나 죽음이 예견되는 말기 암환자의 경우 일반 병원에서는 신체, 정신, 사회, 영적인 요구에 부응하는 적절한 치료와 대우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Korean Hospice & Palliative Nurse Association, 2006). 이처럼 병원에서 사망하는 환자가 해마다 늘어가고 있는데, 2011년 사망통계 자료에 의하면 사망자 26만 명 중 70% 정도가 의료기관에서 임종을 맞이하였다(Statistic Korea, 2013). 이러한 말기 환자들의 삶의 질적인 측면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호스피스가 절실하다. 호스피스는 효

율적이고 높은 질의 완화적 돌봄이 주가 되므로, 임종 환자들에게는 남은 여생동안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유지하면서 죽음을 평안하게 맞이할 수 있도록 도울 뿐만 아니라 사별 가족의 고통과 슬픔도 경감시킬 수 있는 신체적, 정서적, 사회적, 영적 치료를 제공한다(Korean Catholic Hospice Association, 2005; Smith, Brick, O'Hara, & Normand, 2013).

효율적인 호스피스 사업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호스피스에 대한 의료진의 이해가 우선적으로 필요하다. 즉 스스로 죽음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자신이 죽음에 대한 깊은 감정에 직면할 수 있어야 죽어가는 환자를 돌볼 수 있다. 특히 가장 일선에서 환자를 대면하는 간호사는 인간의 죽음에 대한 스스로의 철학을 갖고 있어야 환자와 그 가족들을 도울 수 있다(Braun, Gordon,

주요어: 죽음, 호스피스, 간호학생

Address reprint requests to: Lee, Hyun Jung

Department of Nursing, Kyungdong University, 46 Bongpo 4-gil, Goseong 219-705, Korea
Tel: +82-33-639-0235 Fax: +82-33-639-0239 E-mail: hjlee@k1.ac.kr

투고일: 2013년 9월 9일 심사완료일: 2013년 11월 8일 게재확정일: 2013년 11월 18일

& Uziely, 2010; Lee, 2003; Lee, 2004). 그러나 대부분의 연구에서 간호사와 간호학생이 죽음을 다루기 어려워하는 것으로 보고되었으며, 간호사들은 죽어가는 환자들이나 가족들을 어떻게 간호해야 하는지에 대한 광범위한 교육을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Ali & Ayoub, 2010; Han & Lee, 2009; Lee, 2004). 미국간호대학협의회(American Association of College of Nursing)가 2000년에 개발한 The End-of-Life Nursing Education Consortium (ELNEC)은 말기환자 간호의 질적 개선을 위해 간호사 및 간호학생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으로 그 결과 간호사와 간호학생의 호스피스 지식과 호스피스 환자 간호를 향상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Barrere, Durkin, & LaCourriere, 2008; Kim et al., 2011).

따라서 간호교육과정에서 인간의 죽음에 대한 철학과 태도 및 호스피스에 대한 교육이 반드시 필요하며 그 교육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때 간호학생과 간호사들은 죽음에 대해 보다 적극적이고 개방적으로 대처하는 방법을 확립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까지는 죽음에 대한 태도와 호스피스에 대한 인식 정도를 조사한 국내 연구는 간호사, 일 지역 주민들, 의과대학생을 대상으로 이루어졌으며 간호학생을 대상으로 하여 이루어진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Han & Kim, 2008; Kim, 2012; Kwon, 2007; Lee, 2003; Lee, 2004). 간호교육과정에서 호스피스에 대한 교육을 하기 위해서는 간호학생의 죽음에 대한 태도나 호스피스에 대한 인식정도를 알아야 한다. 특히 3학년부터 본격적으로 실시되는 병원임상실습 중 죽음을 접할 기회를 미리 대비하여 실습 전 준비 단계인 1, 2학년들을 대상으로 이에 대한 실태 조사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이에 본 연구는 간호학생들의 죽음에 대한 태도와 호스피스에 대한 인식을 파악하여 간호학생들의 올바른 죽음관 형성과 호스피스 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그러나 본 연구는 1개 대학의 간호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결과이므로 일반화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2. 연구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간호학생들의 죽음에 대한 태도와 호스피스에 대한 인식을 확인하고 호스피스에 대한 목적 및 필요성을 파악하고자 하는 것으로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간호학생들의 죽음에 대한 태도를 파악한다.

둘째, 간호학생들의 호스피스에 대한 인식을 확인한다.

셋째, 간호학생들의 호스피스에 대한 목적과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확인한다.

넷째, 제 특성에 따른 호스피스에 대한 목적과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확인한다.

3. 용어 정의

1) 죽음에 대한 태도

죽음을 떠올릴 때 생각하게 되는 각 개인의 인식, 불안도, 죽음에 대한 기피, 부정, 수용태도 등이다(Korean Hospice & Palliative Nurse Association, 2006; Korean Catholic Hospice Association, 2005). 본 연구에서는 Lee (2004)가 개발하고 Han과 Lee (2009)가 수정한 도구를 사용하여 측정된 점수를 말한다.

2) 호스피스에 대한 인식

호스피스는 죽음을 앞둔 말기환자와 그 가족을 돌보는 행위로서 환자가 남은 여생동안 인간으로서의 존엄성과 높은 삶의 질을 유지하며 생의 마지막 순간을 편안하게 맞이하도록 환자와 가족의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영적 요구를 충족시키며 사별가족의 고통과 슬픔을 경감시키기 위한 돌봄이며, 호스피스 인식이란 호스피스의 개념을 분별하고 판단하여 아는 정도를 말한다(Korean Hospice & Palliative Nurse Association, 2006; Korean Catholic Hospice Association, 2005). 본 연구에서는 Han과 Lee (2009)가 개발한 전반적인 호스피스 점수와 Lee (2004)가 개발하고 Han과 Lee (2009)가 수정한 호스피스 목적 및 필요성에 대한 점수를 의미한다.

연구 방법

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간호학과 학생들의 죽음에 대한 태도와 호스피스에 대한 인식을 파악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2. 연구 대상

강원도 고성에 소재하는 일개 대학에 재학 중인 간호학과 1학년과 2학년 학생들 104명을 편의표집하여 설문조사를 하였다. 연구대상자 수는 G*Power 3.1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산출하였다. 분석을 위한 최소 표본 수는 유의수준 0.05, 효과크기 0.4, 검정력 0.95의 수준에서 70명으로 산출되어, 본 연구 대상자 수는 적정 표본수를 충족하였다고 볼 수 있다. 조사결과 기록이 미비하거나 불성실하게 기록된 자료를 제외한 103명을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3. 연구 도구 및 자료 수집 방법

2011년 6월 무기명식 설문조사 형태로 강의가 없는 시간을 이용하여 강의실에서 조사하였다. 먼저 대상자들에게 연구자의 연구 목적을 설명하고 설문에 대한 응답은 익명으로 처리됨을 공지하였다. 그리고 연구에 참여하기를 동의한 간호학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구조화된 설문지를 배부하고 개별적으로 설문내용을 작성하도록 한

후 현장에서 직접 회수하였으며 소요시간은 10분 정도였다. 설문 조사 내용은 인구사회학적 특성, 죽음에 대한 태도, 호스피스에 대한 인식으로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죽음에 대한 태도

간호학생의 죽음에 대한 태도를 알아보기 위해서 Han과 Lee (2009)의 도구를 참조하여 총 5문항으로 작성하여 간호학과 교수 2인의 자문을 받았다. 그 내용은 죽음에 대해 생각해본 경험, 죽음에 대한 두려운 정도, 죽음을 생각할 때 가장 걱정스러운 것, 죽음을 생각할 때의 마음, 죽음의 의미로 구성되어 있다.

2) 호스피스에 대한 인식

(1) 호스피스의 일반적 사항

간호학생들의 호스피스의 일반적인 사항들을 알아보기 위해서 Han과 Lee (2009)의 도구 6문항을 간호학과 교수 2인의 자문을 받아 타당도를 검증받은 후 조사하였다. 그 내용으로는 간호학생의 인식 정도를 알아내기 위한 내용들로 호스피스를 들어본 적이 있는지, 어디서 들었는지, 호스피스에 필요한 간호 지식이나 기술은 무엇이 라 생각하는지, 어디서 운영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생각하는지, 어떤 유형이 우리나라에 적합하다고 생각하며, 호스피스가 활발하게 시행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가 포함되어 있다.

(2) 호스피스의 목적

호스피스의 목적에 대해서는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Lee (2004)의 도구를 이용하였으며, 총 6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 내용으로는 정확한 환자 상태와 진단을 알려주어 남은 생을 의미있는 삶이 되도록 도움, 통증을 완화시켜주고 편안함을 도모, 인간다운 죽음을 맞도록 도움, 환자와 환자가족의 생활의 질적 향상을 도움, 전인간호 도모, 환자가족에게 죽음에 대한 과정을 수용하도록 도움이 포함되어 있다. 각 문항은 Likert 5점 척도로 '매우 동의함' 5점에서 '전혀 동의하지 않음' 1점으로 구분하였다. 이 도구의 신뢰도는 Han과 Lee (2009)의 연구에서 Cronbach's $\alpha = .83$ 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80이었다.

(3) 호스피스의 필요성

호스피스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Lee (2004)의 도구를 이용하였으며, 총 9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대학병원과 종합병원에서 호스피스병동 필요성, 의료인으로서 호스피스 케어의 중요한 역할, 말기환자의 생명연장 시술 무의미 여부, 옆 환자의 죽음을 목격한 환자의 공포감, 중환자·치치실에서 말기환자 임종의 비윤리성, 말기환자들의 자신의 외모에 대한 거부감, 말기환자의 감정변화로 인한 특수한 병동의 필요성, 가족들의 환자 돌보는 시

간 부족, 말기 환자들의 의료인들과의 상담기회 부족에 대한 내용이다. 각 문항은 5점 척도로 '매우 그렇다' 5점에서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으로 구분하였다. 이 도구의 신뢰도는 Han과 Lee (2009)의 연구에서 Cronbach's $\alpha = .64$ 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54로 나타났다.

4. 자료 분석 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 WIN (ver 19.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통계처리 하였다. 조사대상 학생들의 일반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빈도와 백분율을 산출하였으며, 죽음에 대한 태도와 호스피스의 일반적 사항, 목적 및 필요성에 대한 간호학생의 인식 정도를 알아보기 위해 평균과 표준편차를 구하였다. 대상자의 제 특성에 따른 호스피스 목적과 필요성 인식은 평균과 표준편차, ANOVA와 t-test를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대상자의 성별 분포를 살펴보면, 연령은 평균 19.11세이었으며, 성별로는 남성이 16명(15.5%), 여성이 87명(84.5%)을 차지하였다. 학년별로는 1학년이 68명(66%), 2학년이 35명(34%)으로 나타났으며, 종교 상태로는 무교가 57명(55.3%)으로 가장 많았으며, 기독교 26명(25.2%), 불교 12명(11.7%), 천주교 6명(5.8%) 순으로 나타났다(Table 1).

2. 죽음에 대한 태도

문항별로 살펴보면, 죽음에 대해 생각해본 적이 있느냐는 항목에서 '가끔 있다'가 44명(42.7%), '드물게 있다'가 39명(37.9%)으로 나타났다. 죽음을 두려워하느냐는 항목에서 '두렵다'가 43명(41.7%)로 가장 많았으며 '보통이다' 30명(29.1%), '두렵지 않다' 22명(21.4%)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죽음과 관련하여 가장 걱정이 되는 것은 '가족과의 이별로 인한 슬픔과 상실'이 32명(31.1%), '생을 마감하는 것'이 30명(29.1%), '죽음의 진행 과정'이 19명(18.4%), '죽음 다음에 생기는 일'이 12명(11.7%) 등으로 나타났다. 죽음을 생각할 때 한 단어로 표현하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Students (N = 103)

Item	Category	n	%
Gender	Male	16	15.5
	Female	87	84.5
Grade	1st	68	66.0
	2nd	35	34.0
Religion	Protestantism	26	25.2
	Catholicism	6	5.8
	Buddhism	12	11.7
	None	57	55.3
	Others	2	1.9

Table 2. Death-Related Attitude (N = 103)

Item	Subcategory	n	%
Experience of thinking about death	None	10	9.7
	Rare	39	37.9
	Sometimes	44	42.7
	Often	10	9.7
Fear of death	Greatly so	6	5.8
	So	43	41.7
	Not so	30	29.1
	Not at all	22	21.4
	The others	2	1.9
Greatly worrying related death	Progress of death	19	18.4
	At end everything	30	29.1
	Future life	12	11.7
	Separation and sadness with family	32	31.1
	The others	10	9.7
Thinking most of death	Calmness	11	10.7
	Anxiety	25	24.3
	Despair	41	39.8
	Anger	4	3.9
	The others	22	21.4
Meaning about death	Beginning of the future life	15	14.6
	Final process of the life	53	51.5
	Unknown	26	25.2
	The others	9	8.7

는 항목에서 ‘허탈함’이 41명(39.8%), ‘불안함’이 25명(24.3%)으로 나타났다. 죽음이 무엇을 의미하느냐는 질문에는 ‘모든 정신적, 신체적 활동의 끝’이 53명(51.5%), ‘신비하고 알 수 없는 것’이 26명(25.2%), ‘내세 또는 평화로운 휴식’ 15명(14.6%)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Table 2).

3. 호스피스에 대한 인식

1) 호스피스의 일반적 사항

호스피스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95명(92.2%)이 들어본 적이 있다고 응답했으며, 호스피스를 알게 된 경로로는, ‘책 또는 교과과정’이 67명(65.0%)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은 ‘매스컴’으로 20명(19.4%)이 응답했다. 호스피스 간호에서 가장 필요한 지식이나 기술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는 항목에서는 ‘환자 심리’라는 응답이 86명(83.5%)으로 가장 높았으며, 그 외에도 ‘간호요령’, ‘생체지식’, ‘종교교리’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호스피스 전문병동이나 전문기관이 있다면 어디서 운영을 담당하는 것이 적합하느냐는 항목에서는 ‘국가의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것이 적합하다는 응답이 46명(44.7%)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은 ‘병원에서 운영’으로 28명(27.2%)이 응답하였고, 그 외에도 ‘국가의 지원으로 종교 및 봉사단체에서 운영’이라는 응답이 24명(23.3%)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에 적합하다고 생각되는 호스피스 유형에는 ‘호스피스 전문병원 또는 기관’이라는 응답이 53명(51.5%)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은 ‘병원 내 호스피스 병동’이 30명(29.1%), ‘호스피스 가정간호사 제도’가 13명(12.6%)

Table 3. The General Questionnaire of Hospice Care (N = 103)

Item	Subcategory	n	%
Never heard of hospice	Yes	95	92.2
	No	8	7.8
Where to listen about hospice	Books or curriculum courses	67	65.0
	media	20	19.4
	Job training education	0	0
	Group religious organizations	2	1.9
	The others	14	13.6
The most necessary knowledge and skills in hospice	Patient's psychology	86	83.5
	Biological knowledge	2	1.9
	Nursing tips	14	13.6
	Religious doctrine	1	1.0
	The others	0	0
In charge of hospice service	Government's public institutions	46	44.7
	Religious groups, or non-profit organizations	4	3.9
	Religious groups, or non-profit organizations with government support	24	23.3
	Hospital	28	27.2
	The others	1	1.0
The most appropriate operating system for hospice in Korea	Special hospice hospital or institution	53	51.5
	Hospice ward in the hospital	30	29.1
	Room in the hospice ward	3	2.9
	Hospice program in the hospital	4	3.9
	Home hospice nurse system	13	12.6
	Lack of understanding of the hospital authorities	20	19.4
	The others	7	6.8

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병원에서 호스피스 간호가 활발하게 시행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 ‘호스피스에 대한 인식은 하지만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므로’가 37명(35.9%)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은 ‘병원의 경제성 고려’가 21명(20.4%), ‘병원 당국의 인식 부족’이 20명(19.4%)의 순으로 나타났다(Table 3).

2) 호스피스의 목적

문항별로 살펴보면, 호스피스가 질병으로 인한 통증을 완화시켜 주고 편안함을 도모한다는 질문에 대한 응답을 분석한 결과 평균 4.48로 높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호스피스가 인간다운 죽음을 맞도록 주는 도움에 대해서 평균 4.43으로 나타났다. 호스피스가 환자 및 가족 생활의 질적 향상을 돕는지에 대해 평균 4.31, 환자의 신체적·정신적·영적 고통을 덜어주고 전인간호를 도모하는지에 대해 평균 4.28로 나타났다. 호스피스가 환자 가족에게

Table 4. The Purpose of Hospice (N = 103)

Item	M	SD
Help to alleviate and comfort from the pain	4.48	0.59
Help to cope with coming death by having dignity	4.43	0.79
Help to improve quality of life of the patient and patient's family	4.31	0.74
Help to alleviate the patient's physical and mental and spiritual pain and to promote holistic care	4.28	0.78
Help family to overcome grief and loss by accepting the process of death	4.27	0.87
Help to live the rest of meaningful life by telling the correct diagnosis and true story	4.24	0.63
Total	4.33	0.09

Table 5. The Needs of Hospice (N = 103)

Item	M	SD
Hospice care is one of the most important role of medical personnel	4.26	0.71
Feel a great fear when hospice patients watch dying bedside patients	4.20	0.91
Because of the number of nuclear families, the family is the lack of time to care for terminally ill patients	4.01	0.89
Not enough time to consult medical personnel about terminally ill patients	4.00	0.78
Must have a separate ward for fluctuating their feelings	3.82	0.92
Should have hospice ward in university or general hospital	3.78	0.87
Hospice care in intensive care unit or treatment room is non ethical procedure	3.63	1.06
Dislike to show their appearance of terminally ill patients to other people	3.55	0.79
No meaningful to extend the hospice patient's life	3.39	0.97
Total	3.85	0.30

죽음에 대한 과정을 수용하도록 도움을 주는 지에서는 평균 4.27, 호스피스가 정확한 진단과 진실을 알려주어 남은 생을 의미 있는 삶이 되도록 돕는 지에서는 평균 4.24로 나타났다(Table 4).

3) 호스피스의 필요성

호스피스의 필요성에 대한 간호학생들의 인식정도는 전체 평균 3.85로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었다. 문항별로 살펴보면, 의료인의 중요한 역할 중의 하나가 호스피스라고 인식한 정도가 평균 4.26으로 제일 높았으며, 임종환자에 대한 말기환자의 공포감 인식은 평균 4.20으로 옆에서 죽어가는 환자를 보았을 때 말기환자의 공포감이 더 클 것이라고 인식하고 있었다. 말기환자의 생명연장 시술의 무의미에 대한 간호학과 학생의 인식정도는 평균 3.39로 제일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Table 5).

4. 일반적 특성에 따른 호스피스에 대한 인식

일반적 특성에 따른 호스피스 목적에 대한 것은 Table 6과 같다.

Table 6. The Purpose of Hospice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N = 103)

Item	Category	n	Mean	SD	F(t)	p
Gender	Male	16	4.14	0.89	1.68	.10
	Female	87	4.37	0.71		
Grade	1st	68	4.26	0.55	-2.07	.04
	2nd	35	4.48	0.44		
Religion	Protestantism	26	4.31	0.45	0.76	.56
	Catholicism	6	4.44	0.74		
	Buddhism	12	4.26	0.42		
	None	57	4.33	0.55		
	Others	2	4.92	0.12		

Table 7. The Needs of Hospice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N = 103)

Item	Category	n	Mean	SD	F(t)	p
Gender	Male	16	3.79	0.48	-0.61	.54
	Female	87	3.86	0.40		
Grade	1st	68	3.83	0.42	-0.54	.59
	2nd	35	3.88	0.39		
Religion	Protestantism	26	3.90	0.41	0.93	.45
	Catholicism	6	3.72	0.45		
	Buddhism	12	3.96	0.32		
	None	57	3.81	0.42		
	Others	2	4.17	0.39		

성별에서는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높게 나타났으나,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학년별로 보았을 때 2학년이 1학년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t = -2.07, p = .04$). 종교에서는 기타, 천주교, 무교, 기독교, 불교의 순으로 나타났으나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호스피스 필요성에 대한 것은 Table 7과 같았다. 성별과 학년, 종교 모두에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Table 7).

논 의

간호사는 생의 전 단계에 걸쳐 있는 대상자를 간호한다. 특히 말기 환자를 위한 호스피스 간호의 중요성과 필요성이 증가되어 호스피스가 점진적으로 보편화 되어가고 있는 추세에서, 생의 마지막 단계인 죽음을 맞이하는 대상자도 간호하게 되며, 어느 누구보다도 그들에게 가장 가까이 접근하게 된다. 본 연구는 장차 간호현장에서 호스피스 간호를 시행하게 될 간호학생들에게 효율적인 호스피스 교육을 하기 위해서 간호학생의 죽음에 대한 태도나 호스피스에 대한 인식정도를 파악하고자 시행되었다.

죽음에 대한 태도에서, 간호학생의 44명(42.7%)이 죽음에 대해 가끔 생각해본 적이 있다고 응답하였는데, 이는 타지역의 간호학생을 대상으로 한 Han과 Lee (2009), Kang (2000)의 연구, 간호사를 대상

으로 한 Lee (2004)와 Lee (2003)의 연구, 의과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Kwon (2007)의 연구와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에서는 '두렵다'가 43명(41.7%)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이 '보통이다' 30명(29.1%)의 순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보통이다'라는 응답이 더 많이 나타난 Han과 Lee (2009), Kang (2000), Lee (2004), Kwon (2007)의 연구 및 Han과 Kim (2008)의 지역사회 주민 대상 연구와는 다소 차이가 나는 결과이다. 이러한 차이는 종교의 영향을 생각된다. 선행 연구에서는 대상자의 25-51%가 무교였던 반면에, 본 연구에서는 55.3%가 무교였다. 많은 사람들이 죽음 및 사후세계에 대한 불안으로 종교를 갖는 점으로 볼 때 죽음에 대한 태도와 종교에 대한 믿음 정도가 상관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Alfons (1999)는 죽음에 대해 알지 못하는 것, 즉 미지와 사후의 삶에 대한 두려움이 인간에게는 있으며, 인간의 근본적인 본능인 자기 보호라는 관점에 볼 때 자기 소멸의 공포는 자연스러운 것이라고 했다. 또한 죽음은 누구나 혼자 갈 수밖에 없기에 고독의 공포가 있음을 설명하였다. 그러나 임종간호에 앞서 필수적인 죽음에 대한 긍정적 태도 변화를 위해 학부 과정에서 죽음에 대한 긍정적 태도 및 인식 변화와 관련된 교육과정이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자기 자신의 죽음을 이해하고 죽음이 넓은 의미에서 생명의 한 과정임을 인식한 후 호스피스 간호를 제공한다면 대상자에게 좀 더 효과적이고 큰 의미가 있는 간호가 될 것이다. 죽음과 관련하여 가장 걱정이 되는 것은 '가족과의 이별로 인한 슬픔과 상실'이 32명(31.1%)으로 가장 많았는데, 이러한 결과는 Han과 Lee (2009)의 연구, Lee (2003)의 연구와 일치한다. 죽음을 생각할 때의 마음과 가장 가까운 단어는 '허탈함'이 41명(39.8%)이 가장 많았으며, 이는 Kwon (2007)의 연구와 일치하였다. 죽음의 의미에 대해 '모든 정신적, 신체적 활동의 끝'이라고 53명(51.5%)이 응답하였으며, 이는 Han과 Lee (2009), Lee (2004), Lee (2003)의 연구와 일치한다.

호스피스에 대한 인식 중 전반적인 호스피스에 대한 항목에서 '호스피스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다'고 95명(92.2%)이 응답했으며, 이는 거의 대부분의 간호학생이 들어본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 Han과 Lee (2009), Kang (2006)의 연구와 유사한 결과였다. 의과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Kwon (2007)의 연구에서는 312명(86.6%)이 들어본 적이 있는 반면에, 지역사회 주민의 응답(Han & Kim, 2008)에서는 482명(66.5%)이 들어본 경험이 있었다. 호스피스를 알게 된 경로로는 본 연구에서 '책 또는 교과과정'이 67명(65.0%)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은 '매스컴'으로 20명(19.4%)이 응답했다. 이는 간호학생 대상(Han & Lee, 2009) 및 간호사 대상 연구(Lee, 2004)에서 나타난 것과 유사한 결과이다. 반면에 Kim (2012)의 연구에서는 일반대학생의 경우 대중매체가 69명(69%)으로 가장 많았으며, 의과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Kwon (2007)의 연구에서는 대중매체와 학교 순으로

나타났다. 호스피스 간호에서 가장 필요한 지식이나 기술을 묻는 항목에서는 본 연구 대상자 중 86명(83.5%)이 '환자 심리'라고 응답하였으며 이는 간호학생 대상 연구(Han & Lee, 2009)와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Lee (2004)의 연구의 결과와 일치하였으며, Kim (2012)의 일반대학생 대상 연구와도 일치하였다. 이러한 맥락은, 호스피스의 어원 'Hospice'가 라틴어의 'Hospes'에 기원을 둔 것으로 접대하는 사람(host)과 손님(guest)의 두 의미를 포함하고 있으며, 주인과 손님 사이의 따뜻한 마음을 표현하는 호스피스 유래와도 같음을 알 수 있다. 또한 호스피스의 기본 철학이 임종에 가까운 사람이 남은 시간 동안 인간으로서의 품위를 잃지 않도록 도와주고,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갖도록 도와주는 측면과도 일치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호스피스 병동 및 전문기관의 적합한 운영 주체에 대한 간호학생의 인식 정도에서는 46명(44.7%)이 '국가의 공공기관에서 운영'해야 한다고 하였고, '병원에서 운영'이 28명(27.2%)으로 나타나 Lee (2003)의 연구와 일치하였으나, 94명(33.9%)이 '국가지원으로 종교 및 봉사단체가 운영' 및 91명(32.9%)이 '병원이 운영'해야 한다고 조사된 Han과 Lee (2009)의 연구와는 다소 차이가 나는 결과이다. 우리나라에서 호스피스 간호가 활발하게 시행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 '호스피스에 대한 인식은 하지만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므로'가 37명(35.9%)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이 '병원의 경제적 고려'가 21명(20.4%) 순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Han과 Lee (2009)의 연구와 일치하며 '호스피스에 대한 일반인의 인식부족', '병원당국이나 의료인의 인식부족', '병원의 경제적 이윤추구' 순으로 나타난 Kang (2000)의 연구와도 유사한 결과이다. 한국 호스피스의 빈약한 서비스는 환자 자신의 삶의 질 저하는 물론 사회 전체에도 한해 의료비 지출로 환자와 그 가족에게 경제적 부담감만 주고 있다. 사망 전 1년간 평균 총 의료비는 약 2천 8백만 원으로, 임종 1개월 전의 의료비는 전체의 11.8% (약 333만 원)을 차지하여 말기암 환자의 의료비가 말기에 가까울수록 많이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National Health Insurance Service, 2011). 우리나라는 2008년 기준 한 해 동안 발생한 호스피스 의료기관의 사망자 수는 4,285명으로 전체 암 사망자 67,561명 중 6.3%만이 호스피스 서비스를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7년의 미국 호스피스 사망자 38.8%와 큰 차이를 보이고 있어 우리나라 암 사망자의 호스피스 기관 이용률이 상대적으로 매우 낮음을 확인할 수 있다(Kyung, Jang, Han, & Yun, 2010). 이러한 결과는 우리나라의 호스피스 활동은 주로 종교적 이념에 의해 봉사적 차원에서 시작되었으므로 호스피스 활동에 대한 정부 차원의 재정적 지원체계 미흡이 원인인 것으로 사료된다. 2011년에는 암 사망자 71,579명 중 8,494명(11.9%)이 호스피스 의료기관에서 사망하였으며 이는 2008년보다 5.6% 증가한 수치(National Health Insurance Service, 2011)이기는 하나, 추후 호스피스 사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국

가적 지원 및 법적인 제도화가 필요할 것이다. 또한 이러한 시대적 흐름에 따라 간호학생 및 의료인에게 호스피스 인지도 제고 및 저변 확대를 위한 교육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호스피스 목적에 대한 간호학생들의 인식정도는 전체 평균이 4.33으로 나타나, 호스피스의 목적을 잘 알고 있다고 사료된다. 그 중 높게 나타난 항목은 '호스피스는 질병으로 더해오는 통증을 완화시켜주고 편안을 도모한다'로 평균 4.48로 나타났는데 이는 Lee (2004)의 연구결과와 일치하며, 가장 낮게 나타난 항목은 '호스피스가 정확한 진단과 진실을 알려주어 남은 생을 의미있는 삶이 되도록 돕는다'로 평균 4.24로 나타났으며 Han과 Lee (2009)의 연구와 일치한다. 이러한 결과에서 간호학생 역시 간호사와 마찬가지로 호스피스가 임종환자에게 고통없이 인간답고 품위있게 죽음을 맞이할 수 있도록 돕는다는 부분을 가장 높게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호스피스의 필요성에 대한 간호학생들의 인식정도는 전체 평균이 3.85로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었다. '호스피스 케어는 의료인의 중요한 역할 중 하나라는 항목에 대한 간호학생들의 인식 정도는 평균 4.26으로 항목별 점수 중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Han과 Lee (2009)의 연구 및 Lee (2004)의 연구결과에서도 모두 높게 나와 간호학생 역시 간호사와 마찬가지로 호스피스 간호가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이러한 결과들은 교과과정에 호스피스 간호가 포함되어야 함을 알 수 있다. '말기 환자의 생명연장을 위한 시술은 무의미하다'는 항목에 있어서 간호학생들의 인식정도는 평균 3.39로 가장 낮았고, 이는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Lee (2004)의 연구와 간호학생들 대상 Han과 Lee (2009)의 연구에서도 각각 3.23과 3.76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로 말기 환자에서의 생명연장을 위한 시술의 무의미성에 대해서는 간호학생 역시 간호사와 마찬가지로 인식이 그다지 높지 않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호스피스 목적에서는 학년에서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 2학년이 1학년보다 높게 나타났는데, 2학년은 기본간호학 과목의 임종 간호 교육을 통해 어느 정도 호스피스 간호의 목적을 느끼고 있고 각 항목에 대한 이해가 1학년 학생에 비해 높은 것으로 결과를 해석할 수 있겠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호스피스 필요성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본 연구는 연구대상자 표집과정에서 일부 지역 간호학생을 편의 표집 하였으므로 결과의 일반화에 제한을 가진다. 그리고 다른 제한점으로는 호스피스의 필요성 측정 도구의 낮은 신뢰도 문제로, Han과 Lee (2009)의 연구에서는 2-4학년을 대상으로 했지만, 본 연구에서는 1, 2학년만을 조사하였고 그 중 전체의 60% 이상을 차지한 1학년에게는 도구의 내용이 다소 생소하여 나타난 결과로 해석할 수 있겠다. 그러나 앞으로 간호사가 될 간호학생의 죽음에 대한 태도와 호스피스에 대한 인식 정도를 살펴봄으로써 간호학생의 죽

음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죽음에 대한 긍정적인 가치관을 형성하도록 교육프로그램 및 호스피스 교육 개발에 필요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였음에 의의를 가진다.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간호학생들의 죽음에 대한 태도와 호스피스에 대한 인식 정도를 파악하여 호스피스 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시도되었다. 강원도 고성에 소재하는 일개 대학에 재학 중인 간호학과 학생 103명을 대상으로 2011년 6월 설문 자료를 수집하였고, 수집된 자료는 빈도, 백분율, 평균과 표준편차, ANOVA 및 t-test로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죽음에 대한 학생들의 태도에서는 '죽음에 대해 전혀 생각해 본 적이 없다'가 9.7%로 대부분의 간호학생들은 죽음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죽음을 두려워하느냐는 항목에서 '두렵다'가 41.7%, 죽음과 관련하여 가장 걱정이 되는 것은 '가족과의 이별로 인한 슬픔과 상실'이 31.1%, 죽음이 무엇을 의미하느냐는 질문에는 '모든 정신적, 신체적 활동의 끝'이라고 51.5%가 응답했다.

둘째, 호스피스의 일반적 사항 중 호스피스에 대해 92.2%가 들어 본 적이 있다고 답했으며, 호스피스를 알게 된 경로로는 65.0%가 '책 또는 교과과정'인 것으로 나타났다. 호스피스 간호에서 가장 필요한 지식이나 기술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는 항목에서는 '환자 심리'라는 응답이 83.5%로 가장 높았다.

셋째, 호스피스의 목적에 대한 간호학생들의 인식정도는 전체 평균 4.33으로 높았으며, 호스피스의 필요성에 대한 간호학생들의 인식정도는 전체 평균 3.85로 나타났다.

이상의 연구 결과를 토대로 간호학생의 죽음에 대한 태도와 호스피스에 대한 인식을 반영하여 차별화된 교육 과정 개발과 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제안한다. 또한 개발된 프로그램을 적용하고 효과를 분석하는 추후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참고문헌

- Alfons, D. (1999). Hospice care for the dying and the bereaved. *Journal of Research Institute for Hospice & Palliative Care*, 4, 57-70.
- Ali, W. G. M., & Ayoub, N. S. (2010). Nurses' attitudes toward caring for dying patients in Mansoura University Hospital. *Journal of Medicine and Biomedical Sciences*, 16-23.
- Barrere, C. C., Durkin, A., & LaCoursiere, S. (2008). The influence of end-of-life education on attitudes of nursing students. *International Journal of Nursing Education Scholarship*, 5(1), 1-18.
- Braun, M., Gordon, D., & Uziely, B. (2010). Associations between oncology

- nurses' attitudes toward death and caring for dying patients. *Oncology Nursing Forum*, 37(1), 43-49.
- Kang, K. S. (2000). A study on the nursing student's attitude on death and hospice. *Chonnam Journal of Nursing Sciences*, 5(1), 187-201.
- Kang, K. S. (2006). A comparative study on death orientation and the cognition & nursing needs of hospice i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Cheju Halla College*, 29, 11-25.
- Kim, H. S., Kim, B. H., Yu, S. J., Kim, S. H., Park, S. H., Choi, S. E., & Jung, Y. (2011). The effect of an End-of-Life nursing education consortium course on nurses' knowledge of hospice and palliative care in Korea. *Journal of Hospice & Palliative Nursing*, 13(4), 222-229.
- Kim, Y. J. (2012). *Knowledge of hospice and attitude toward care of dying in university students*. Unpublished master's thesis,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Daegu.
- Korean Catholic Hospice Association. (2005). *Understanding of hospice*. Seoul: Hyunmoonsa.
- Korean Hospice & Palliative Nurse Association. (2006). *Study guides for hospice and palliative care*. Seoul: Sumunsa.
- Kwon, B. K. (2007). *A study on the attitude toward death and hospice care perceived by medical students*. Kyunghee University; Seoul.
- Kyung, M. H., Jang, Y. M., Han, K. H., & Yun, Y. H. (2010). Current status and activation plan of hospice palliative care in Korea-based on hospice palliative care facilities survey. *The Korean Journal of Hospice and Palliative Care*, 13(3), 143-152.
- Lee, H. J. (2003). Nurses' attitude toward death and hospice. *Journal of Research Institute for Hospice & Palliative Care*, 7, 87-104.
- Lee, Y. J. (2004). *A study on nurses' perception and attitude toward death and hospice*. Unpublished master's thesis, Daejeon University; Daejeon.
- National Health Insurance Service, Health Insurance Policy Institute. (2011). *An analysis of the costs of healthcare services for the cost savings in the last year of life*. Seoul: National Health Insurance Service, Health Insurance Policy Institute.
- Han, J. Y., & Lee, N. Y. (2009). Nursing students' attitude toward death and perception on hospice care. *Journal of Korean Oncology Nursing*, 9(2), 95-103.
- Han, Y. R., & Kim, I. H. (2008). Attitude toward death and recognition of hospice of community dweller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Public Health Nursing*, 22(1), 49-61.
- Smith, S., Brick, A., O'Hara, S., & Normand, C. (2013). Evidence on the cost and cost-effectiveness of palliative care: A literature review. *Palliative Medicine*, 9 July, 1-21, DOI: 10.1177/0269216313493466
- Statistic Korea. (2013). *2011 Death Statistics*. Retrieved August 19, 2013, from the Korean Statistical Information Service web site: <http://kostat.go.kr/portal/index/statistics.action>